

2022 OPEN! X.

결핍의 문제가 풀린다. (사역의 원리)

[요한복음 6:11-13]

- 11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12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13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찻더라

1. 질문?

예수님께로 배고픈 큰 무리가 모였다. 이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빌립에게 질문을 하신다.

[요한복음 6:5]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큰 무리의 필요는 배고픔이다. 배고픔은 채워야 해결되는 문제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고통은 결핍과 부족함에 대한 것이다. 결핍과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다.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다. 부족하고 결핍이 있기 때문에 채움을 갈망하는 것이다. 목마름의 갈증은 물을 찾게 되어 있다. 배고픔은 먹을 것을 찾는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결핍과 부족함이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채움이다. 부족한 공간이 없었다. 빈 컵을 채우는 법은 간단하다. 빈 컵에 넘칠 때까지 물을 붓는 것과, 물속에 컵을 잠기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위로부터의 공급이 차단되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다. 결핍과, 목마름과, 배고픔은 고통이다. 현대인들의 욕구와 욕망은 결핍된 인간의 본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인간은 찾는다. 그래서 채운다. 그런데 그 채움이 영원하지 않다. 내 노력으로 채워야 한다. 위로부터 값없이 부어지는 공급이 아니기 때문이다. 채우지 않으면 불안하다. 능력이 없으면 채울 수 없기에 불안하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오늘 빌립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은 '바로 저 무리의 결핍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너는 저들의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다. 복음은 인간의 결핍에 대한 문제이다. 영원한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2. 사역 - 채움에 대한 것

오늘 예수님이 빌립에게 던진 질문은 '사역'에 대한 것이다.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사역이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복음의 본질을 볼 수 있다. 복음은 결핍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재적 열쇠이다. 복음은 추상적 지식이 아니다. 배고픔이 있는 자에게 빵이 복음이다. 목마른 자에게 물이 복음이다. 결핍된 문제의 채움이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어 결핍된 우리들에게 오셨다. 그리고 그 떡을 '먹으라' 말씀하셨다. 결핍의 문제로 가득찬 세상을 보아야 한다. 그래야 복음이 실재가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바로 복음의 실재이시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채움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결핍이 있는 곳을 가셔서 사역을 하셨다. 오늘 오병이어로 잘 알려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사역의 원리를 배울 수 있다.

3. 사역의 원리

(1)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 안에 불가능은 없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빌립은 자신의 분석과 계산을 말한다.

[요한복음 6:7]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분석의 요지는 '부족하다'이다. 그래서 채울 수 없다는 것이다. 빌립을 향한 예수님의 시험의 핵심은 '너는 이들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느냐'에 대한 것이다. 믿음에 대한 것이었다. 빌립의 대답은 지금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 안드레가 한 아이에게 있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예수님은 안드레가 가져온 오병이어로 사역을 하시기로 결정하신다.

[요한복음 6:11]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복기도를 드리셨다’고 표현되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믿음이 없으면 오병이어로 뿐이다. 내 능력 만큼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작은 오병이어로 오천 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 아버지이시다.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sonship’이다. 우리에게 sonship(아들됨)이 필요하다.

(2) 원대로 주신다.

[요한복음 6:11]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복음에는 인색함이 없다.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사역의 원리는 풍족함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계산해서 나누신 것이 아니다. 필요한 것보다 넉넉히 주셨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원대로 아낌없이 나누어야 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풍족하게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사역이다.

이 시대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사랑은 풍족하고 넉넉한 사랑이다. 돈이 많다고, 나눌 것이 많다고 인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사역은 마음이다. 넉넉히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넉넉히 부어주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낌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3) 버릴 것이 없게 하라.

[요한복음 6:12]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말씀하셨다. 넉넉하다고 해서 낭비하라는 것이 아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큰 사역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함부로 여기는 사람은 절대 큰일을 할 수 없다. 사역의 원칙이다. 성경은 언제나 작은 것과 큰 것을 함께 다룬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결국 큰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얻는다. 내 앞에 있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

(4) 처음부터 끝까지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동일해야 한다. 계획, 기도, 과정, 그리고 마무리까지가 중요하다. 오천 명을 먹이는 사역의 끝은,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모아두는 것까지이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사역을 생각할 때 그 이벤트만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오늘 성경은 남은 것을 모아 거두는 장면까지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세밀하고, 마지막까지 집중되어 있는지를 배워야 한다.

(5) 가득 차게 하라.

[요한복음 6:13]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찻더라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결핍을 채우는 것이다. 오병이어의 마지막은 열두 바구니에 ‘찻더라’로 끝이 난다.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넘친다. 간당간당 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채우신다. 완성하신다. 다윗의 고백을 보라.

[시편 23: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원수의 공격이 있었어도 내 잔을 넘치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다. 하나님은 내 잔을 넘치게 하는 분이시다. 채우시는 분이시다.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물은 결국 나를 넘쳐흐른다. 은혜의 강물이, 능력의 강물이, 사랑의 강물이 넘쳐흘러야 한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다. 열두 광주리를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자. 나는 결핍 없는 존재이다. 내 가정도, 우리 공동체도, 교회도, 온 열방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것이다. 흘러넘치는 예배, 흘러넘치는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자. 그 넘쳐남이 결핍을 채우는 열쇠가 된다.